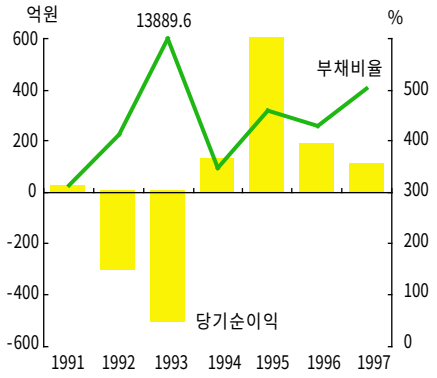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석유화학, M&A가 불가피한 이유

한국 석유화학산업계에 M&A의 폭풍은 불어닥칠 것인가?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폭풍의 핵」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일정부분 규모화돼 있고,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운이 좋게 돌아간다면 부채경영으로 부실에 허덕이는 재벌들의 「아킬레스 건」을 해결해줄 수도 있다고 한가닥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내 석유화학산업이나 관련기업들 모두가 적자와 흑자의 틈바구니를 헤집고 다닐지언정 명확하게 「장래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석유화학산업 또는 관련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능력, 마케팅력, 가격경쟁력 3가지가 열위에 가까우며, 최종적으로는 한국 석유화학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밑바닥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들은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일부는 경쟁력이 있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92~93년의 극심한 불황을 잘 넘겼으며,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이 상당하고, 한국산의 품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다는 푸념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국가적으로 고지가,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 저생산성이라는 「4고1저」에 의해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으니 문제이다.

정부는 최근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6월부터 부실기업을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3년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기업, 부채규모가 연간매출을 넘어서는 기업 등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을 차단하고 융자를 회수함으로써 문을 닫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석유화학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특히, NCC를 보유한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빈약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첫째, 국내의 8대 NCC기업 중 SK 및 호남석유화학을 제외한 6대기업은 정부의 퇴출 대상기업 선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부채가 과다하고, 흑자를 달성할 요인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 신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SK 및 호남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둘째, 8대 NCC기업의 마케팅력은 한마디로 「제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형편이 없다. 89년이후 삼성·현대의 석유화학사업 참여를 계기로 불어닥친 경쟁적 투자물결 이후 실질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마케팅력이 「빵점」이라는 것이다. 95~96년의 막대한 흑자는 마케팅력의 덕분이 아니라 「석유화학 카르텔」이라는 비정상적인 「담합」에 의한 것이고, 97년 호남의 흑자도 「담합의 지속」 및 「EG」를 달러 베이스로 거래한데 따른 「행운」이었을 뿐이다.

셋째, 가격경쟁력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전혀 없다」로 말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헤집고 다님은 물론 심지어 덤핑 운운하는 악담까지 들어야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국내에서의 「공급·가격카르텔」에 따른 폭리가 없었던들 감히 동아시아 시장을 뒤흔들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을 뿐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98년 -3.1%, 99년 -0.4%, 2000년 1.4% 등으로 침체국면이 장기화하고 실업률은 각각 7.0%(154만명), 8.4%(170만명), 8.3 %(168만명)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잉투자와 부실경영으로 IMF의 신탁통치 원인 제공자 석유화학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이다.

<화학저널 1998/5/25>